

관광시즌 코로나 확산 우려가 현실로

4월 들어 하루 3명꼴인 56명 확진... 20일엔 7명 감염 관광객 확진사례 급증... 방역당국 "도민도 쓰는 추세"

제주지역에서 하루 사이 7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확진자 대다수가 관광객으로 이들에 의한 n차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일 하루 동안 918명을 상대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중 7명(677~683번)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도내 누적확진자는 683명으로 늘었으며 이달 들어서는 56명이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다. 하루 사이 확진자가 7명 이상 발

생한 것은 이달 들어 3번째, 올해 들어서는 6번째 일이다.

이 가운데 677번은 제주도민으로 전남 방역당국에 의해 공개된 확진자이고, 나머지 6명은 간밤 사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678번과 679번은 가족 사이로 다른 가족 1명과 함께 지난 17일 제주에 여행을 왔다. 이들은 지난 20일 동대문구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을 통보 받고 진단 검사를 받았으며 양성으로 판정됐다. 나머지 가족 1명은

최초 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됐지만 확진자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680번과 683번은 지난 19일 전라남도에서 제주로 신혼여행을 온 부부이다. 이들은 제주에 오자마자 683번의 직장 동료가 확진됐다는 소식을 듣고 진단 검사를 받았으며 둘 다 확진됐다.

681번도 제주에 여행을 온 관광객이다. 681번은 골프를 치기 위해 위해 지난 18일 제주에 왔으며 이를 뒤 광주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을 통보 받고 진단 검사를 받았으며 양성으로 판정됐다. 나머지 가족 1명은

682번은 지난 15일 광주에서 제주를 방문한 지인 2명과 접촉했으며 이들을 만난 다음 날부터 근육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였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남양역대응추진단장은 "전국적으로 확진자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도내 확진자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 도민들과 제주도를 찾는 입도객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해 마스크 쓰기, 모임이나 접촉 자제, 제주 안심코드 등 출입명부 작성, 의심증상이 있으면 빠르게 검사 받기 등 4가지 수칙을 반드시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이호 말등대와 관광객 21일 제주시 이호대우해변 말등대를 찾는 관광객들이 해안산책을 하며 제주의 봄을 만끽하고 있다. 이상민기자

서귀포시 오늘부터 백신 접종 75세 이상 등 1만3600명 대상

서귀포시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서귀포의료원)를 통해 22일부터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접종 대상은 75세 이상 어르신, 노인 주·야간 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등 1만3600여명이다. 1차 접종은 22일부터 오는 5월 21일까지 읍면동별로 실시되며, 2차 접종은 1차 접종 이후 3주 경과한 시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접종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침에 따라 센터 소재지 직제순으로 12개 동지역에 이어 5개 읍면지역 주민에 대한 순으로 진행된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봉개동 폐기물처리시설 악취 해소될까

냄새저감사업 환경부 국정과제 선정돼 정부 차원 관리로 주민불편 해소 기대

악취 발생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제주시 봉개동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해 냄새 저감사업이 올해 환경부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제주시는 봉개동 폐기물처리시설 냄새저감 사업이 지난 14일 2021년 환경부 국정과제로 선정돼 앞으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봉개동 환경시설관리소는 매립장과 소각장을 비롯 재활용선별시설, 음식물 자원화시설 등 폐기물시설을 갖추고 운영돼 왔다. 현재 이곳은 매립과 소각은 종료된 상태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쓰레기 및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냄새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환경시설관리소는 탈취설비 설치

운영 및 시설물 보강 등 다양한 냄새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해 불편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올해 폐기물처리시설 냄새 저감사업이 환경부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효율적인 냄새 저감을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는 환경부 국정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 냄새저감사업에 박차를 가해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2018년도부터 매년 2개 지역을 선정해 악취 취약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지역 유관기관과 환경 거버넌스를 구성해 추진하고 있다.

추진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은 악취전문가 집단을 활용, 발생원 조사와 측정·분석, 개선방안 제시, 합동 원인조사 및 특별 교육 등을 통해 지자체와 함께 체계적인 냄새저감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시 환경시설관리소 관계자는 "국정과제 선정에 계기로 봉개동 폐기물처리시설 악취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 지역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윤형기자

"죄송합니다... 올해내 모두 갚겠습니다" 취업장려금 1700만원 편취 북한이탈주민 법정서 눈물

통일부에서 지원하는 '북한이탈주민 취업장려금'을 허위로 수령한 30대 여성이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판사는 21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북한이탈주민인 A씨는 지난 2016년 6월 14일부터 2018년 6월까지 통일부에서 지원하는 취업장려금 1750

만원을 허위서류를 작성, 제출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A씨는 "이미 450만원은 반납했고 5월까지 추가로 550만원을 반납할 계획이다. 올해 내로 모든 금액을 성실히 갚도록 하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김연경 판사는 추가 반납이 이뤄지는 시기에 맞춰 오는 5월 12일 오전 11시30분 두 번째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송은범기자

청원경찰에 육설한 공무원 벌금 800만원

텐트 철거를 요구하는 국립공원 청원경찰에게 육설을 하고, 몸으로 밀친 50대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판사는 공무원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 소속 공무원 김모(52)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후 4시 30분쯤 제주시 소재 야영장에서 한

라스국립공원 소속 청원경찰이 텐트 설치금지구역에 설치한 텐트에 대해 철거를 요구하자 육설을 하며 머리로 청원경찰의 이마를 밀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연경 판사는 "그동안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아 당연퇴직 사유가 되지 않는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송은범기자

고기 구워먹으려 숲 피웠다가 차량 화재

지난 20일 오후 1시47분쯤 제주시 용강동 소재 공터에 세워진 투싼 차량에서 불이 나 22분 만에 자체 진화됐다.

이 화재로 투싼 차량이 전소돼 소

소방. 소방당국은 운전자 A씨가 고사리 채취 중 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차량 내에서 번개탄과 숯을 피웠다가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송은범기자

사기혐의 전 도청 씨름단 감독 "씨름단 위한 것" 법정서 호소

전 제주도청 씨름단 감독이 선수 계약금을 부풀려 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제주도청 씨름단 감독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9년 12월까지 제주도청 씨름단 지휘봉을 잡았다.

A씨는 제주도청 씨름단 소속 선수 3명의 계약금을 부풀려 제주도체육회에 보고하고, 계약금이 지급된 뒤에는 선수들에게 각 10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

겨졌다. 또 부상치료 중인 선수를 전지훈련에 데려가 200여만원을 지원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3000만원은 선수들에게 모두 돌려줬다"면서 "이 사건 범행은 개인적 이득을 위해서가 아닌 씨름단을 위해 이뤄진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거구인 씨름선수 1인당 식대가 7000원에 불과해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A씨의 사비로 충당해야 했다"며 "또 사비로 선수단 버스를 구입해 직접 선수들을 실어 날랐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A씨가 지휘봉을 잡은 뒤 제주도청 씨름단이 태백장사 4회 등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긴 점 등도 참작해달라고 덧붙였다.

송은범기자 seb119@ihalla.com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공익단체로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하며 제주주민들께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라일보 창간 32주년을 축하합니다

한라일보 창간 32주년을 축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장 김용범 대의원회의장 문영진

수석부회장 이정훈	부회장 이권호 이화정 고관표 조현민	부의장 이현동 이명인
총무이사 유현욱	법제이사 이길수	학술이사 김현우
총무이사 송대성	법제이사 오동준	학술이사 권오상
의무이사 박순돈	공보이사 조석주	재무이사 고봉성
의무이사 최승효	공보이사 장순봉	재무이사 강호정
보험이사 김창순	정책이사 정유남	정보통신이사 김성중
보험이사 오동훈	정책이사 차민욱	정보통신이사 김형성
		대외협력이사 김형준
		대외협력이사 김중림
		특별사업이사 이문휘
		중앙이사 김희종
		감사 김석
		감사 이승희

제주시 오라남로 45, TEL. 064)757-4640, FAX. 064)757-4590

한라일보 창간 32주년을 축하합니다

건강한 사회, 행복한 제주를 위한 언론의 역할을 다하며 밝은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제주의 대표신문으로 항상 독자와 제주도민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회장 이상기 대의원총회의장 홍상철

대의원총회부회장 김성언 수석부회장 현경철 외무부회장 강준혁 내무부회장 문창민

내무이사(복지)	황학수	의무이사	정원근	무임소이사	안호수
보험이사	정성인	법제이사	김진석	무임소이사	이상훈
총무이사	이경원	학술이사	최우석	정보통신이사	
총무이사		홍보이사	정우희		
재무이사	이창승	홍보이사	박준상	감사	김성중
홍보이사		국제이사		감사	김성은
국제이사	최미영				

제주시 국기로 36 성은빌딩(4층) TEL. 751-3545, FAX. 751-2579